

## 192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논전에 대한 지식사적 재해석

吳 炳守

### 1. 왜 “사회주의 논전”인가?

“사회주의 논전”은 1920년대 초반 중국에서 어떤 방식의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지식인 내부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주체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볼셰비즘이 시작되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발점으로서 평가되어 왔다.

이 글에서 굳이 이 논쟁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주의는 여전히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관건 중의 하나라는 점, 둘째는 그에 비추어 이 논쟁의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평가 받아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인들이 “사회주의”라는 이상을 목표 지향적인 “근대”, 또는 근대 국가체제와 어떻게 결합시켰는지를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근대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을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본래 합의가 다층적이고 가능태로서 외래지였던 “사회주의”를 어떻게 “볼셰비키” 형으로 특징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단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문적 시효가 다한 정통사관을 제외하면 크게 두가지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우선 중국에서 맑스주의 수용과 공산주의 건설 과정의 한 단계로서 주목하는 연구였다. 지식 청년들이 어떻게 맑스-레닌주의를 수용하고, 대중을 조직하여, 정치적 주체로 나서게 되는지를 계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맑스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당 건설과 관련된 문제만 다룸으로써 오사기 사회주의가 갖는 역사적 선택지로서 의미에 대한 총체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수적으로, 일본등으로부터 수용된 사회주의 래원과 경로등에 대한 실증적인 작업등이 이루어졌지만, 중국 사회주의 형성에 미친 실제 영향등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문제가 많다.

최근 국민국가 건설 시각이 보편화 되면서, 호적등 오사 세대나, 기타 보수주의 사조등 다양한 세력에 주목하는 경향 속에서 張東蓀, 張君勱등 논전 주체들에 사상과 입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논전의 중심이었던 『新青年』과 『解放與改造』, 『時事新報』등을 중심으로 논전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양 진영이 목표로 추구했던 사회주의 이상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사기 중국 지식계의 다양한 사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성격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부수적으로는 오사 중심의 일련의

역사인식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논전의 배경

5.4 시기 중국에서는 사회주의가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의 시대사조였다. 일차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 사조의 영향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종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우선 중국의 사회주의 수용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서구에서 그러하듯이, 매우 다층적 함의를 지닌 외래어였다. 그것은 1871년 3월에 이미 파리꼬뮌에 대한 목격담과 함께 맑스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전해진 이래, 서구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맞추어 꾸준히 소개되었다. 江南製造總局에서 간행한 『西國近事匯編』이나 『萬國公報』은 당시 서구의 노동운동을 “유럽의 대동을 주장”하고, “貧富適均”, “貧富均財”의 학설로서 소개하거나, 또는 ‘大同學’이라는 이름으로 맑스 엥겔스의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서구에 대한 정보이자 하나의 학설로서 소개된 셈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사회주의는 지식으로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국가 건설에 필요한 근대 지식의 일부로서 고려되면서 부터였다. “장차 20세기는 사회주의의 全勝時代라”했던 梁啟超는 사회주의를 적극 고려하였다. 양계초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빈부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간섭 정책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장래의 문제였고, 국가건설 이후 실행할 정책으로서 장기적인 연구 대상이었을 뿐 이었다.

양계초는 또 서구의 다양한 사회주의를 점진 노선의 국가사회주의와 급진적인 극단사회주의, 또는 협의의 사회주의(공산주의, 무정부주의)와 광의의 사회주의(사회개량주의)등으로 분류하고, 국가사회주의 또는 개량주의를 자신의 노선으로 선택하였다. 土地國有나 資本共有등과 같은 혁명적인 정책을 피하고, 점진적인 사회 정책을 통해 실현한다는 의미였다.

한편 혁명파는 사회주의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孫文은 구미에서 계급 격차의 심화와 각국 사회당의 활약을 근거로 사회 혁명이 임박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민생주의와 사회주의를 혼용하면서, 節制資本및 平均地權등을 통한 大資本및 지주 억제 정책에 그 비중을 두었다. 토지와 자본의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貧富均衡 정책을 통해 미래의 “社會革命”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구 사회 혁명이 경쟁의 방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승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혁명과 구별되는 사회 혁명을 주장하고 동시 진행을 주장하였다.

특히 혁명파의 주장은 입헌파와의 논쟁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다. 朱執信등은 맑스의 생애와 함께 계급투쟁의 불가피성, 잉여가치학설, 공산당 선언등을 소개하고, 細民 革命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상당 부분 일본 사회주의 영향에 의존 한 것이었다. 20세기 초부터 유학생들을 통해 『長廣舌』(幸徳秋水 著, 中國國民叢書社 역, 商務印書館,

1902년)이나 『사회주의』(村井知至 著)등이 中譯 되었고, 『譯書匯編』, 『開智錄』, 『浙江潮』, 『江西』 등을 통해서도 번역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는 잉여가치 학설, 계급론등과 같이 일정한 추상적 개념군과 연관된 지식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서구 정치 사상의 일부로 이해되었을 뿐이었고, 어떤 정밀한 함의를 갖춘 용어는 아니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당시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는 “三代時代의 井田”과 관련하여 이해 하는 등 중국의 전통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세계 의식에 기초한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되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현저하였지만, 손문도 이점과 함께, 중국은 공상업의 발달이 지체되어 자본가 계급의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실현하기가 쉽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를 통한 서구 초월의 가능성을 정식화한 것이다. 또한 무정부주의자들은 세계주의, 과학주의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중국에서 초기 사회주의는 서구에 대한 정보에서 수용되었으나, 미래의 방략으로서 인용되었고, 또 중국의 전통과 결부된 하나의 이상이자 윤리로 범주가 확장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사 시기 사회주의는 새로운 사조와 결합하면서 논의의 폭이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그 특색이 두드러 졌다. 첫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및 국가주의로 대표되는 근대 세계의 대체물로서 인식되었다. 자산계급을 대체한 노동계급의 부상을 필연으로 인식되었고, 호조와 박애, 그리고 세계주의, 민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자, 공리적 필연으로서 논의되었다. 공화정의 붕괴라는 국내상황보다는 일차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 서구사조의 영향이었다. 당시 일차대전을 資本主義와 軍國主義로 대표되는 근대의 종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하나의 특색은 세계주의가 두드러졌다는 점이었다. 이대조는 Bolshevism의 勝利를 “서민의 승리이자”, “현재 사회주의의 장애인 국가의 한계를 타파하는 것. 자본가의 독점이익을 타파하는 것”으로 보았다. 진독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였고, 학생들의 애국주의 조차도 일본에서 수입한 국가주의일 뿐이라고 비난하였다. 장동손이 “第三種革命論”을 통해 “土商계급(Bourgeois)에 이은 노동계급(Proletariat)의 득세를 필연으로 전제하고.” “一階級, 一民族의 문제가 아닌, 全人類의 問題를 추구할 것”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둘째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당위이자, 가능한 범주로서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전후 영국, 독일, 러시아에서의 정치적 변동은 그러한 기대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社會運動, 改造運動이 전개되었다. 길드사회주의, 工黨主義, 불세비즘 등 다양한 사회주의 사조가 수용되고 실험되었다. 특히 『신청년』, 『개조』 등은 이를 주도함으로써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회주의 논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 3. 논전의 재구성

사회주의 논전은 1920년 11월 5일 張東蓀이 『時事新報』에 발표한 「由內地旅行而得之又一教訓」이라는 단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당시 러셀과 함께 호남지역을 순방하던 장동손은 중국 농촌의 절대적 빈곤을 근거로, “중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富力의 증가 뿐”이며, “……現在 中國人은 通商 口岸과 都會의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사람다운 생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이념은 …곧 중국인 모두가 일찍이 얻어 본 적인 없는 사람다운 생활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니. 서구에서 이미 만들어진 어떤 社會主義, 國家主義, 無政府主義, 불세비키주의등이 아니다”라고 하여 기왕의 여러 논의를 공당주의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 즉각 다수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장동손의 “實業 開發”을 통한 民富 增殖論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전제하고, 사회주의적 방식을 옹호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장동손은 이러한 비판들을 일일이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특히 陳獨秀는 그가 주편하고 있던 『新青年』 8 권 4 기(1920 年 12 月 1 日) 에 그 주요 내용을 「사회주의에 관한 토론」이란 제목으로 연재하는 한편, 후속적으로 李達, 李季, 周佛海등을 통해 불세비키 방식의 사회주의 논리를 적극 주장하였다. 梁啓超, 張東蓀 역시 『개조』를 통해 서구 사회주의 사조를 활발하게 소개하는 한편 「社會主義研究」(『改造』 3 권 6 기) 를 특집으로 펴내면서 논전에 대응하였다. 사실상 『新青年』과 『改造』를 축으로 논전이 전개된 셈이다. 당연 다수의 지식 청년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장동손의 이같은 언급이 논전의 계기가 된 요인은 무엇일까? 사실 그의 주장이 그의 평소의 입장과 맥락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계급간 격차가 크지 않고, 열강의 정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처지에서는 물질의 발달=경제적 부의 증식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이전부터의 주장이었다. 이점은 陳獨秀도 같은 입장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또 장이 견지한 길드 사회주의 역시 그의 倫理 市民論이나, 社會連帶論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신문화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양측이 동일하였고,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역시 공유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동손의 언급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장동손의 문제 제기가, 종전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던 농촌 문제를 제기한 데 있었다. 그것은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사회주의”를 현실 차원으로 끌어내린 셈이었으니, “근대를 넘어선 체제”로서 사회주의를 전망하던 그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가능성에서 현실로의 전환은 이미 진독수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진은 이미 「談政治」(1920 年 9 月 1 日)를 발표하였는데, 이 글은 두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張東蓀, 胡適등 당시 담론공간의 대표들을 不談政治로 비난하는 한편, 그리고 불합리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強權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정치”를 낳은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 생활을 강조하고, 강권을 대신한 호조와 대중 민주주의를 새로운 사회주의 원리로서 모색하고 있던 당시 지식계의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실제 “談政治”이후 『신청년』은 신문화 운동에 대신하여 맑스주의 이론과 「俄羅斯研究」, 「社會調査」등을 통해 불세비키 방식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인도와 호조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윤리 대신,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논리적 전환이었다. 사회주의 논전은 사실상 진독수의 「담정치」에서 이미 시작 된 것이고, 그것은 불세비즘과 비 불세비즘 사이의 논쟁이었던 셈이다.

논전의 내용은 애초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곧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방법; 즉 길드사회주의인가? 계급독재를 핵심으로 하는 불세비즘인가?로 비화하였다.

장동손의 주장은 당시 중국 조건에서는 노동 계급이 역량이 절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권력 장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며,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노동자의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은 불세비즘은 國家社會主義, 政治主義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방법을 채용하여, 노동자의 자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주의 실현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장은 물론 자본주의화에 따른 사회적, 계급적 분열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방법과 노동자계급의 자치를 겸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비자본주의적 생산을 확대하고, 다수 인민이 참여하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확장 없이 생산 기관의 공유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발상이었다. 규모에 따라 국영, 공영 사업과 함께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協社 형태를 중시하는 길드주의적 발상이었다.

장동손은 특히 진독수등이 주장한 국가 주도형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비판하였다. 중국의 계급조건과 문화조건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勞農專政과 같은 방식은 실행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중국 농촌의 보수성, 분산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계급독재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적 기초가 없고, 또 그 같은 집권제를 실행할 만한 정치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張東蓀이 추구한 것은 건전한 시민 사회의 형성이었다. 당시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軍閥과 財閥의 결합에 따른 정치 사회적 분열이고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계급의 결핍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와 자본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민 계급의 형성, 그것이 장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資本主義를 선택한 셈이었다. 빈곤과 무지가 가장 관건적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려한 길드주의적 발상은 인도와 호조라는 사회주의적 원리를 고려한 것이었다.

물론 진독수는 장의 논리적 전제; 즉 계급적 미숙성과 절대 빈곤등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장이 제시한 가설, 즉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한 시민 계급 형성론에는 비판적이었다. 특히 이를 기초로 군벌과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시민 사회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진독수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자본가 주도의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 우선 자본가의 본질적 성격 문제이다. 진은 자본주의란 본질적으로 계급 모순을 심화 심화시키는 것이 속성이고, 또 중국 자본가는 모두 외국 자본가의 매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본가의 성장을 통해 외국 자본가를 견제하고 중국의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강력한 인민 정부 수립이 효과적이라는 발상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진은 “자본주의를 통해 國民經濟를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함으로써 점차 사회주의를 실현하다는 것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등 정치 경제적 독립성과 문화적 자율성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중국처럼 하루가 다르게 제국주의적 침략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Revolution 이 아닌 점진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관의 문제였다. 진독수는 국가란 폭력을 장악한 기구이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자의 대표일 수도 없고, 정치와 경제를 간단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길드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기구들을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즉 조직적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 혁명 정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주의’ 적 원리를 고려한 자본주의적 방법이 적당한지, 오히려 계급 독재를 통한 인민정권의 수립이 우선인지는, 논리적 경험적 근거로서 가려질 것은 아니었다. 진행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노농전정을 실행 할 수 있을만한 노동자 계급이 미숙한 상황이라면, 길드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증명해야 할 과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논쟁은 5.4 를 계기로, 고양된 국민주의를 바탕으로 신문화 운동의 돌파구 찾는 지식청년들의 동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가 요구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新青年』이었다. 논전의 진전에 따라 볼셰비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일부, 혁명적 무산계급에 의해 임시적인 계급독재가 가능하다는 계급독재론은 사실상 합리적인 토론의 종결이었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장동손 등이 주장한 합작사등의 실천 방법 역시 대계도 등 국민당 세력이, 혁명정권의 수립 이후, 본격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초안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더 이상 논쟁 지속의 요인은 제거된 셈이었다.

그러나 진독수 등이 구사한 계급독재론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 李達, 周佛海, 李漢俊등을 통해 논쟁 과정에서 구성 된 것이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이론화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 권력의 수립의 근거를 제기하는 방식이 그러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논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애초 상해 노동자의 비참성을 들어 착취자를 반증하는 방식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세계 무산자론을 내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계급독재론을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였다. 또 사회조사 역시 노동자 및 사회에 대해 풍습과 도덕을 포함한 인도적 관점에서, 계급적 관점으로,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관찰적 서술에서, 소비에트 권력의 성격에 대한 분석적 서술로 이어진 것이 그러한 예였다.

그리고 그것은 소비에트 체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계급독재론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현실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점은 장동손 등이, 러셀의 논리와 영국 독일의 길드주의 운동을 근거로 삼아 처음부터 고정된 지식 체계를 구사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특히 신청년은 논쟁이 진행될 수록, 코민테른과의 정치적 관계를 배경으로, 제 3 국제를



정통으로 간주하고, 여타의 유럽 사민주의를 “개량”으로 비판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다양성을 부정하였다.

논전은 물론 상당한 공통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논전이 진행될수록 양자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또 당시 다른 논전이 그러하듯이, 사회주의 논전 역시 국가 건설 방략을 둘러싼 다른 논쟁에 규정되면서, 쟁점에서 벗어났다. 국민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양한 방식의 논쟁이 이어졌지만, 그 핵심에는 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가 내재하고 있었다. 진이 인민 권력의 수립을 통한 국민국가 형성을 지향한 반면, 장은 국가권력의 축소를 통한 시민사회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은 노동자계급의 組織化 및 혁명정권의 건설 방법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이해한 반면, 장은 곧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의 자율공간의 확대에 관심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건설의 주체, 방식, 이념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른바 연성자치론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 국민 혁명과 북벌을 둘러싼 대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논전이 토론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검증 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 4. 논전의 결과

논전을 둘러싼 양자의 서로 다른 입장은 곧 서로 다른 실천으로 드러났다. 논전 직후 진독수가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고 계급의식을 갖춘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에 나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공합작과 국민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였다. 근대적 국가 형태로의 전환이었다.

자본주의화를 통한 시민 사회 형성을 주장한 장동손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장은 본래 정치 영역에 대립되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중시하였다. 볼셰비키 방식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성적이고 자유의 원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보수성, 분산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뿌리 깊은 자율성과 보수성을 갖는 농민을 시민화 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지역적 자율성, 다원성의 긍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그것은 계급독재가 아니라 지극히 소극적 정부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지방자치와 연성자치의 논리로 표현 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방법과 사회주의 정신을 결합한 合作社 및 協社, 그리고 연방제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당시 上海 米價 폭등, 北方 四省의 大饑荒등을 계기로 국가 권력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사회적 자율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상당한 현실적 기초를 갖고 있었다. 특히 자연재해, 奸商의 투기, 그리고 국가권력의 역할 상실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물리적 개량과 함께 농촌합작사, 소비합작사, 및 사회의 자치 역량의 증대 방안이 폭넓게 사회적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의 자율역량의 확대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중요문제를 처리하자는 현실적 근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의 논리가 구체화 된 것이 上海職工俱樂部와 합작사 운동이었다. 전자는 1922 年 5 月 成立한 순수한 직공 단체로서 상해 공인들의 생활 곤란을 스스로 해결하고, 심신을 수양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補習學校, 合作商店, 合作通信社를 부설하고, 各科委員會 및 評議院, 主任制를 채택하여 합작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2 年 5 月부터 합작상점과 보습학교를 조직 운영하였으니, 전자는 호조와 개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고, 공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개선하고 대상인의 농간에 대항하는 것이 목표였다. 노동자의 윤리적 각성을 통해 스스로의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자기생활의 이상을 개조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특히 후자는 일련의 활동 끝에, 12 月 同孚消費合作社(商務印書館) 등 상해지역 5 단체 합작 연합회를 결성하고, 주말학교 개설, 각종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운동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는 모두 계급투쟁이 아닌 합작과 호조의 종신에 기초하여 민중의 지위를 제고하고 사회 통합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불세비키 방식의 당 조직과 대중화 방식, 그리고 코민테른의 막대한 지원을 얻은 국공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게다가 1923 年 이후 격화된 내전에 따라 이같은 시민자치는 활동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장동손 스스로가 활동 중단을 선언할 정도였다. 이후 혁명세력의 팽창에 따라 자연히 위축이 불가피 하였다. 논전이 이성적인 토론 보다는, 정치 자원의 이용 및 분배를 둘러싼 지식권력의 재편 속에서 완료된 것이다.

## 5. 결어

5.4 시기 중국 지식계에는 사회주의가 크게 유행하였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적 근대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화 과정에서 지극히 강력한 근대 국가 권력 수립으로 귀결 되었다. 사회주의 논전은 그 시발점이었다. 불세비키와 길드주의자 사이의 이 논전은, 불세비키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거기에는 불세비즘이 논전의 진행과정에서 스스로 지식 체계를 구성한 점도 있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논리적 토론을 통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그렇지만, 이 논전 이후 불세비즘은 대중을 동원하여, 국민혁명을 추동하는 혁명이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만큼 애초의 사회주의가 전제했던 세계주의, 호조주의는 현실화 되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 발표 전에(번역하지 마세요)

훌륭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념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



공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닌 저 개인을 대표할 수 밖에 없습시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개념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한섭 선생님처럼 개인적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몇몇 단위에서 개념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론 수용 단계에 있거나, 실험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대 지식의 형성시기에 한국은 서구의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수용, 번역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사 보다는 사상사, 지식사, 교류사가 보다 접근이 용이했을 것이고, “동아시아 근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방법으로서 개념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제가 속해 있는 대학에서도, 가까운 동료들이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개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의 성과와 방법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저의 글 역시 “研究系”를 중심으로 해 온 연구를, 본 회의에 맞추어 정리 해 본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